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대응방안 모색

도·14개 시·군, 긴급 점검 회의... 계절근로자 근로기간 연장·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활용 방안 등 논의

공공부문 19만 명 인력지원·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대책 등 선제 추진... 영농철 일손 해결 총력 당부

전북도가 지난 1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14개 시·군 농정과장들과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대응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농촌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본격 농번기가 다가올에 따라, 각 시·군의 농촌 인력 지원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농촌인력 수급 대응 우수 사례 공유 및 개선 사항 발굴을 통해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올해 국내인력 공급 여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외국인력 공급 여건은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 확대로 전년보다 양호하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도는 올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19만 명의 인력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하고, 도 단위 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신규 운영한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이 13개 시·군 1,74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7개 시·군 521명) 대비 234%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 활성화에 위해 산재 보험료(100%), 시설관리 비용(50%), 파견근로자 차량 임차



전북도가 지난 1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14개 시·군 농정과장들과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대응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농촌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비(100%) 등에 도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

일손 소규모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2021년 1개소에서 2022년 2개소(무주군 입실군)로 확대 한다.

이와 함께, 전북도 우호지역인 베트남 등을 활용한 시·군의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양해각서 체결도 적극 지원한다.

도는 특히, 시·군에서 건의한 ▲계절근로자의 근로 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국내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4촌 이내) 초청 제도 활용 방안,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인원 배정 확정 시기를 2개월 앞당기는 방안 등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일손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시·군에서 건의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도와 시·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번기 일손 대책을 선제적으로 적극 추진해 일손 부족으로 농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미세먼지 저감 위한 노후 차량 저공해화 사업 추진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12만 대 완료 계획

1톤 화물차·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전북도가 노후 경유차 운행 중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5등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사업 물량은 약 1만1천 대 분으로 총 44억 원을 투입한다. 조기 폐차의 경우 1만4천 대를 지원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은 5천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덤프터, 콘크리트믹서트러,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다.

조기 폐차 지원요건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또는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과 연수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금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의 경우 소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신청 방법은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동일하다. 지원금은 부착 가능한 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약 90%인 최소 2,400천 원에서 최대 13,403천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도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운영 중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액화석유가스)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을 경유차에서 LPG를 사용하는 신차로 전환하면, 700만 원을 지원한다.

임진도 미세먼지대응팀장은 "전북도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전북도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노후 산단 정주여건 개선 '속도'

김제순동산단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확정

전북도가 올해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내 노후 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10면>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한 '2022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김제순동 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근로환경이 열악한 노후 산업단지에 문화, 주거, 편의 기능이 집적화된 복합시설을 구축해 청년 유입과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

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5개 산단이 신청해 14개 산단이 최종 선정됐으며, 김제순동산단은 입주기업, 근로자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수요 분석 결과를 반영한 센터 공간배치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으로 차별화했다.

복합문화센터는 산단 근로자를 비해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과 북카페 등 문화·복지 시설은 물론 세미나실, 기업홍보 및 교육 등 지원시설을 갖추게 된다.

/유호상 기자

어린이창의체험관, 과학체험 프로그램

'체험관 속 과학이야기' 운영

전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이하 체험관)은 전주효자시니어클럽과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험관 속 과학이야기'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체험관 속 과학이야기'는 체험관 체험시설인 '차방사방 부피', '뚝뚝 뚝뚝 공사장', '찰흙찰흙 무지개하천'

을 주제로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놀이재료를 활용한 과학 놀이팁을 소개하는 비대면 콘텐츠다. 해당 콘텐츠는 21일부터 체험관 누리집(<http://www.tchilidkr>) 온라인 상상놀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체험관 입시후관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개관 시 체험시설 현장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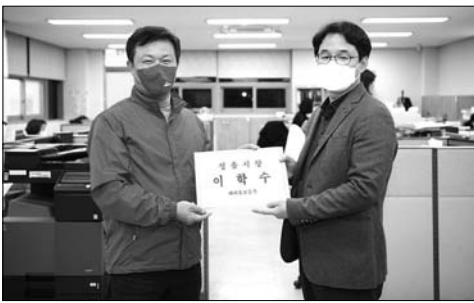
"준비된 시장으로 정읍발전 견인"

이학수 전 도의원, 정읍시장 예비후보 등록

21일 오전 샘고을시장에서 출마 선언키로

이학수 전 전북도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4시 정읍선관위에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정읍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등록을 마친 이학수 예비후보는 곧바로 정읍시 수성동 성황산에 위치한 충훈당을 찾아



이학수 전 전북도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4시 정읍선관위에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정읍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참배하고 새로운 정읍을 만들기 위한 결전의 의지를 다졌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선관위 등록 후 자료를 통해 "코로나19의 절박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읍에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준비된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난 8년간의 도의원 경험과 20년 동안 정

치인으로서 쌓아온 지방과 중앙의 인맥을 활용해 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읍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11시 정읍샘고을시장 다목적 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장 출마의 변과 준비한 공약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순환관광버스로 봄 여행 가자"

전북 주요 관광지를 전담 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는 '만원의 행복'

도내 순환형·서울·부산 출발 광역형·코레일 연계형 등 총 78개 코스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순환관광버스가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 1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앞으로 20~30대 관광객 공략을 위한 핫플레이스 코스를 추가 발굴하는 등 특정 계층

도 순환관광버스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도내 관광지 접근성 높이기 위한 여행 상품이다.

전담 해설사와 함께, 도내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앞서 도는 올해 공모를 통해 향후 2년간 순환관광버스를 운영할 민간위탁사로 전북도관광협회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고객 여행사 협약과 운행코스 정비, 특별코스 개발을 마쳤다.

운행코스는 전주종합경기장, 익산역 등에서 출발하는 도내 순환형, 서울과 부산 등에서 출발하는 광역형, 서울역·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코레일 연계형 등 3개 유형으로 총 78개 경로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MZ세대를 겨냥한 새만금 단독코스를 선보이고, 테마 유형별 6개 코스를 새롭게 준비했다.

타 지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행 뚝뚝 새만금조제길'도 경험할 수 있다.

홍보에도 힘을 기울인다. 순환관광버스 탑승료는 도내 순환형 1만원, 광역형 당일 3만원 및 1박 2일 9만7,000원, 코레일 연계형 당일 7만9,000원 및 1박2일 16만9,000원이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누리집(<http://www.jtour.or.kr>) 또는 전화(252-2988)를 활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외국 관광객도 쉽게 순환관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버전으로 누리집을 개편하고, 국내·외 카드 결제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는 전북순환관광버스 홍보와 다각적인 노력으로, 2023년 이후 전북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참여 관광객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도의 테마가 있는 관광지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순환관광버스를 준비했다"며 "타 지역에서 느낄 수 없는 친절하고, 수준 높은 해설 안내 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평생교육은 계속됩니다' 무주군이 4월부터 7월까지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오는 25일까지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수업에 받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9면>

탄소중립, 재활용 탄소섬유 산업 첫 걸음!

도, 재활용 탄소섬유 활용 융복합 부품 상용화 지원

탄소제품 안전성 검증·가격 경쟁력 확보

전북도가 탄소산업의 재활용시장 확대와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활용탄소섬유 활용 융복합 부품 상용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섬유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부담 해소와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탄소제품 가격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전북도 대표 탄소섬유 수요기업 2개사(H사, I사)와 전문기관, 그리고 재활용 업체 간 기술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2년간 비구조재용 부품 및 응용제품에 제작을 지원, 성능평가와 실증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재활용탄소섬유 제조 기술 및 물성분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적용 가능한 산업군을 도출해 사업화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제품 성능 표준화(안)를 마련해 관련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 사업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R&D)도 추가 발굴한다.

세계 탄소복합재 대비 탄소복합재 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 0.6% 정도이며, 국내의 경우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폐탄소복합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케이텍이치)가 재생탄소섬유의 본격 양산을 위해 전북도에 공장을 증설 추진(2023년까지 년 4,500톤 규모)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도 참여해 기업에서 현물로 재생 탄소섬유를 제공하고, 성능시험 등 보유한 기술자료 등을 공유,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특히, 탄소섬유 시장 확장에 대비한 수요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탄소중립 등 환경규제 강화로 기업 생산·납품 단계부터 재활용 방안 의무화 추세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의 고민거리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재활용 탄소섬유는 강도 등 성능이 표준화돼 있지 않은 관계로, 기업에서 전방산업의 소재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표준화된 저가의 재생탄소섬유를 확보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국·내외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갖춰지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사업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압도적 지지 감사, 부족함 채우겠다"

이돈승 부분부장, 대선 직후 감사·사과 인사

전북 완주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이돈승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조직본부 부분부장이 대선 직후, 매일 아침 완주군민에게 감사와 사과의 인사를 드려 주목을 끌고 있다.

대선 다음날인 10일부터 이 전 부분부장은 보드판을 들고 봉동읍 마그네교 봉동 행정복지센터, 둔산리 등지에서 감사와 사과의 인사를 드리고 있다.

보드판에는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에 대해 이 전부분장은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부분부장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

를 얻지 못한 것이 뜻내 아쉽다"며 "무엇보다 88.9%의 지지를 보내준 완주군민께 죄송스런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부분부장은 "80.0%의 투표율과 82.98%의 지지율을 보내주신 전북도민의 허망함과 아쉬움을 클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부족했기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래서 더욱 죄송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와함께 이 전부분장은 "대선에서 보내준 지지를 잊지 않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곧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라고 강조하고, 당분간 이같은 감사와 사과의 인사를 계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원주=이중복 기자